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c.org@gmail.com](mailto: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mailto: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cs@gmail.com](mailto:stfranciscs@gmail.com)

[제1독서] ..... II 역대 36,14-16.19-23

[화답송] ..... 시편 137(136),1-2.3.4-5.6(♩6 L 크)



(후렴) 내가너를 생각하지않는다 면, 내허가입천장에 달라붙으리 라.

- 바빌론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제2독서] ..... 에페소 2,4-10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3,14-21

[성가안내]

- 입당성가 [122] 구원의 십자가
- 봉헌성가 [332] 봉헌
- 성체성가 [176] 믿음 소망 사랑
- 파견성가 [117] 지극한 근심에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강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허갑종 Robert Bellarmine

김종화 필립보 가족  
 김영숙 카타리나  
 김경련 율리다  
 김지영 유스티나  
 허정윤 크리스티나

생미사

봉헌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3월 14일	백이백 아오스딩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재인 테레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유정옥 유스티나
3월 21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최진영 수산나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사순제 4 주일 성경 묵상**

(2역대 36,14-16.191-23/에페 2,4-10/요한 3,14-21)

오늘 제1독서를 통해 주님께서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며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탈출하고자 찾아온 최고의 의원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의 다름이 있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로마 7,19). 그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는 비겁함,

이기심, 열등감, 이중성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에  
빛보다 어둠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빛을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빛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나갈 때,

제2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충만하며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선하고 옳게 행동할 수 있다. 양심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쉬네이데시스의 어원은 “함께 본다”는 뜻인 동사 쉬네이데나이다. 누구와 함께 본다는 것인가? 하느님과 함께 본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부르시는지 식별하는 ‘장소’이다.

- 송봉모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구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5장 -

순명에 대하여

겸손의 첫째 단계는 지체없는 순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일이며, 그들은 서약한 거룩한 섬김 때문에,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원한 생명의 영광 때문에, 장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명령받았을 때 즉시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실행함에 지체할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께서 "귀로 듣자마자 나에게 순명했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교사들에게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을 즉시 그만두고 사사로운 뜻을 버리고, 자기가 하던 일에서 즉시 손을 떼어 아직 마치지 않은 채 그래도 두고, 순명의 빠른 걸음으로 명령하는 이의 말을 행동으로 따른다. 스승의 명령이 나오는 것과 제자의 실행이 완수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하느님을 두려워함에서 오는 신속함으로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빨리 실행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원의가 간절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의 원의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삶의 판단과 명령을 따라 수도원 안에 살면서 아빠스를 자기 으뜸으로 모시기를 원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명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감미롭게 되는 것은, 명령받은 바를 겁내지 않고 느리지 않으며, 무관심하지 않고, 불평이나 싫다는 대꾸 없이 실행할 때이다. 왜냐하면 장상들에게 바치는 순명은 곧 하느님께 하는 것이니, 주께서 친히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느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제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순명해야 한다. 만일 제자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순명하든지 또는 입으로 불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마음속으로도 불평한다면 비록 명령을 완수했다 하더라도, 불평하는 그의 속마음을 이미 들여다보시는 하느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이런 일에는 아무런 은총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보속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화해의 성사

우리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정영도                      노의선

[2021년 Daylight saving Time]

오늘, 3월 14일 주일 미사 시간이 한시간 당겨집니다.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변경 안내]

- 3월 28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오전 8시
- 4월 4일 '예수 부활 대축일' - 오전 8시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org>

**[미사참석 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사순시기 - 공동 보속]**

**매일 오후 3시, 주모경 1번 :**

사순시기 시작 첫날인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는 투병중에 계신 모든분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매일 오후 3시에, 각자 계신 장소에서 주모경 1번을 바치며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 수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시기를 지내려 합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바칩니다.
- 사순시기 동안에 받는 고백성사는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고백성사 : 1) 매주일 미사전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  
2) 평일에도 신부님과 미리 연락하시면 가능함.

**[줌(zoom) 활용한 온라인 사순특강]**

(홈페이지 참조 : [www.fec.or.kr](http://www.fec.or.kr))

- 일 시 : 2/23 - 3/23, 매주 화요일 밤 8:30 - 9:30 (뉴욕 시간)
- 유튜브로 중계되는 유료강의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접속링크가 제공됩니다.
- 강의 시간에 맞추어 링크를 클릭(누르면)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강의 일자, 주제와 강사(작은 형제회 소속)

일자	주 제	강 사
2/23	찬미와 권고의 삶	오상선 바오로 신부
3/2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루카 1, 54. 72)	정장표 레오 수사
3/9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
3/16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
3/23	팬데믹 시대의 형제애적 등불,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모든형제들"	김일득 모세 신부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org](http://stfrancis.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